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2호 [루게 제24830호] 주체104(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점의 불찌라도 떨어뜨리면 다시는 선불질을 못하게, 다시는 우리 조국강토를 넘겨다보지 못하게 원수들의 아성을 통채로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올려 성취하려는 일당백장병들의 열적의 의지가 용암마냥 타버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담력과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는 배짱, 비범특출한 전략전술로 반공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병철 동지가 훈련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인 룡군중장 리성국 동지, 군단정치위원인 룡군소장 리영철 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연습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신 이번 연습은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온세상에 다시 한번 힘있게 파시하여 적들의 기를 꺾어버리며 일단 싸움이 벌

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총정지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부장인 룡군대장 현영철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룡군대장 리영길 동지,

어지면 원수들이 도사리고있는 섬을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하고 질풍노도같이 점령하기 위해 세운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습에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무도영옹방어대, 장제도방어중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부대, 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으로부터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한 결심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연습개시명령을 주시였다.



우리의 수역에 무모한 포탄을 쏘아댄 《적》들에게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진행한데 이어 발악적으로 대응해나오는 《적》들의 섬에 강력한 화력타격이 들쭉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으는 포탄들과 반함선로켓트가 《적》들이 차지하고있는 섬에 독버섯처럼 들어있는 포위차발견용탐지기, 포병 및 유도 무기진지들, 지원함선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으며 되살아난 포병중대, 전과탐지기, 통신감청소, 지휘소, 유생력량과 땅크, 전진기지들을 무자비하게 답

새기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목표들을 타격할 때마다 정말 잘한다고, 집중성이 아주 좋다고, 저렇게 같으면 적들이 도사린 섬이 아예 없어지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훈련은 적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적진을 벌초해버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준비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포병구분대들의 실천능력을 뚜렷이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습이 끝난 다음 훈련결과를 총화해주시고 포병화력구분대들에서 극복해야 할 결함들을 지적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주체적포병전법을 더욱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등지를 틀고있는 섬들의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었는데 오늘 진행된 연습을 통하여 서남전선을 지키고있는 제4군단관하 포병들이 적들을 불도가니에 처벌을수 있게 준비되어있음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완전히 뿌리뽑으며 현대전에서 제기 될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현실적인 훈련들을 많이 진행하여 최고사령관이 언제 어떤 정황을 주고 명령을 주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하여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에 백두산훈련 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로 만드므로써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미치 정신을 차릴새없이 놈들을 목사발만들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를 받은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군인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채로 재더미로 만들고 칠천지원수들에게 가장 참혹한 종국적멸망을 안기고야말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사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일대일 지침으로 김정은 동지를 위한 김정은 동지들의 결속을 관철하자

조선로동당장군 김정은과 조국해방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인 힘있게 벌여지고있는 역사적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 대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지침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 지침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소식은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사이에서 열렬히 환영받고있으며 새로운 영웅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열린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획기적인 위대한 계기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내리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보고에 지적된바와 같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3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대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굳건히 이어왔으며 영웅적인 투쟁을 벌여 조국통일에 길이 빛날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였다. 이 나날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가시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셨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의 비범함을 배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계속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부름과라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경 쌓인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것은 지난 3년간의 중요한 성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수려로운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란한 결함과 교훈들을 총괄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전술적, 전인민적인 총공격을 벌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하루빨리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스리구 깊이 새겨주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바로 여기에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역사적의의가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과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조선을 천하에 일장군,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대한 림장과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관점문제이며 최후승리에 대한 신념문제이다.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의 길을 단하는가 하는 문제, 백두산대국의 광명한 대미를 확신하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하여 끝없이 돌진하는가 아니면 주저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수령의 전사, 제자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량심을 검증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우리 혁명의 교과서인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갈 때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위업의 전진성과 정당성,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될것이며 이 땅우에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될것이다.

올해는 조국해방 일꾼들과 당장군 일꾼들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존엄으로 빛나는 이 선을 따라가려는 우리 당은 어떻게 맞이하는 올해를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의 변혁적성과로 빛내이는것은 더없이 보람차고 의의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어떻게 충정으로 받들고 현실로 꽃피워야 하는가를 고귀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계신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조력자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품도를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강고히 불태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은 우리의 생명이니 철칙의 신념을 간직하고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은 우리 혁명의 교과서이며 과학적이고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조선을 천하에 일장군,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자기 부분,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한다던 강성국가건설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사업정형을 량심적으로 심각히 검토총화하여야 하며 나란한 결함과 부족점들에 서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제기된 문제를 무책임하게 대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인다운 태도와 림장에서 유훈관철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칙히 관철하는 여기에 우리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고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유훈관철의 길에서 벼를 깔고 피를 버지며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제 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불 때까지 뜨겁게 내밀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중심고리를 쫓아와 틀어쥐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집행한것과 집행하지 못한것, 중도반단된 문제들과 미진된 과업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철칙히 집행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실질적인 결실이 나타나고 생활력이 발휘될 때까지 일관성있게, 타협없이, 완강하게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고 행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중의 유훈이고 혁명의 교과서이며 과학적이고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행한 모든 일 다 잘되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우리는 농산과 축산, 수산에 힘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높이며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집집승기르기를 이르는 곳마다에서 균중적응등으로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료의 국산화비율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결실을 내립어야 한다. 도, 시, 군들에 걸맞는 사업에 힘쓰고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대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기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베풀어오신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계속 살려 인민들이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평도업적단위들이 용을 쓰며 일떠서면 다른 단위들이 따라 일떠서게 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자강도와 성강, 함남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멘 앞장에서 받들어오는 훌륭한 전통을 가진 단위들이 계속 시대의 본보기가 되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로 돌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칙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천치천왕유공장과 천리마타일공장,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하여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표준공장, 본보기공장과 실적을 내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이 보여주는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 특히 책임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한다. 주판적욕망에 사로잡혀 일을 여가지기 버려만 놓고 어느 하나도 똑똑히 걸여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오늘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면서 무슨 일이나 새롭게 착상하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며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신인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상적정형상을 길라배워 균중적응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당중앙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일군이라면 마땅히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한히 존경할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인민을 위한 일부러 찾아할줄 알아야 하며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는것을 제철칙, 승상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을 위전제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칭한, 총동지로서 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칙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이다. 모든 당사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지향되고 복종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여기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방적으로 배집없이 집행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침투시켜 그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완전히 깨닫고 배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평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은 혁명적요령과 천치천왕유공장, 혁명적요령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치교시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한다. 약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낡은 틀과 형식주의에 매인 정치사업이 아니라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혁명적열정을 불려일으키는 전투적이며 진취적인 산정직사업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해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전으로 어로공물을 불려일으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화신식정치사업을 따라배워 균중적응에 들어가 이신작적하면서 현장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균중을 당정책관철제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길라배워 따르도록 철칙히 집행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 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형식주의,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의 사소한 요소들과 강도높은 투쟁을 벌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어떤 현상들도 법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사무실적사업방법과 소량대적일본새를 극복하고 지도를 아래에 집근시키며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바로잡아나가도록 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백두산전세위인들의 백전백승의 혁명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어떤 역경속에서도 화를 안고도 전진하며 세계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의 부름과라 백두의 혁명적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산악같이 일심, 천만민들의 혁명적열정과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는 한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절망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할 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세폭의 붉은기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대교조의 각기 당을 세우게 지어올리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기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있게 나뭇가지 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기운동을 언제나 중요하고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평양시공정국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나라의 보배공장이며 평양시민들의 생활향상에서 커다란 몫을 담당하고있는 굴지의 식료품생산기지이다.

공장조직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기운을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그 실천을 위한 투쟁으로 적극 불려일으키

오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공장의 전반적면모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전면변경하였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구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자이크형성작품을 중추적 모시고 천지교시한다.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위대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공장에 깃들여있는 백두산전세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결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로동자문화회관을 비롯한 대교양장소들에 5대교양과 관련한 자료들과 직관전설물들을 많이 비치해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종업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역세게 준비시켰으며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이 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10여차례나

받아안은 영향을 지닌것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엄을 모신 시표표창과 김일성훈장연예상을 수여받았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조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통합생산조종체를 실현하고 당과로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관화, 무진화하였다. 18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안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훨씬 높였으며 최근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전진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에 강령서적 260여명의 인체제를 키워왔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용성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현대화된 생산설비들을 원만히

관리운영해나가게 하고있다. 종합적인 연구부서설립과 탁아소, 정양소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개진보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으며 1만 2000여그루의 수목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을 심어 구내의 환경을 일신시켰다.

평양시공정국에서 진행된 국답사차사업소 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을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경사용위정파배설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순간순간에 수령경사용위정파로 살며 일해나가게 하고있다. 어느 한 혁명적지적지변에 뜻밖의 일도 화제가 됐을 때 이곳 종업원들은 서슴없이 불려일으키며 혁명적투쟁을 벌여 종업원들을 이끄는 혁명적투쟁을 높이

추진하였다. 종업원들속에서 김정일에국주의 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짜고들었다. 이 나날에 종업원들속에서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정주도모해주기의 실천과 같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기풍이 차차피 되었다. 이곳 종업원들은 다이나, 축진지를 비롯하여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당사자들의 운행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밖에 도 위원관 락민협동농장 제4작업반, 2.8비탈론련합기업소 품질감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자동차직장, 해주철길대철단철소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기운을 힘있게 추동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인 재령광산에 현대적인 체육관을 건설하여 대량 생산을 할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배구, 바드민턴,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를 할수 있으며 수영장과 목욕탕, 리발실, 유희오락장 등 문화후생시설들도 그치지 않고 있다. 1000여석의 관람석을 가진 야외체육기장까지 꾸리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꾸려놓았다. 이렇듯 체육 및 문화생활기회로서의 사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일군들은 당의 승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평양체육관과 류경원 등 여러곳을 돌아보며 광부들이 좋아할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체육강국건설을 지향하는 시대적요구와 광부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인 재령광산에 현대적인 체육관을 건설하여 대량 생산을 할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배구, 바드민턴,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를 할수 있으며 수영장과 목욕탕, 리발실, 유희오락장 등 문화후생시설들도 그치지 않고 있다. 1000여석의 관람석을 가진 야외체육기장까지 꾸리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꾸려놓았다. 이렇듯 체육 및 문화생활기회로서의 사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일군들은 당의 승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평양체육관과 류경원 등 여러곳을 돌아보며 광부들이 좋아할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체육강국건설을 지향하는 시대적요구와 광부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인 재령광산에 현대적인 체육관을 건설하여 대량 생산을 할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배구, 바드민턴,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를 할수 있으며 수영장과 목욕탕, 리발실, 유희오락장 등 문화후생시설들도 그치지 않고 있다. 1000여석의 관람석을 가진 야외체육기장까지 꾸리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꾸려놓았다. 이렇듯 체육 및 문화생활기회로서의 사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전성삼

《인민들이 덕을 보며 좋아합니다》

회령군 민돼지공장

한 모든 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그치지 갖추어져있고 살균패지들이 우글거리는 내부는 더욱 밝았다. 통돼지가 가득 쌓인 팽창고며 사료대들이 그득그득 넘쳐나 굶지 못할것같은 참으로 어디를 돌아보나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배인 하동동무는 공장에서 달마다 수십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회령시의 금양봉사부문에 보내주고 시민들에게 정성공급하고있는데 대한 자랑을 덧붙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회령시민들이 정말 큰 덕을 보았다. 공장의 이 자랑스러운 현실을 어버이장군님께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말할 것지 못하는 지배인의 눈가에 뜨거울것같은 감동이 있었다.

“우리 회령시민들이 정말 큰 덕을 보았다. 공장의 이 자랑스러운 현실을 어버이장군님께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말할 것지 못하는 지배인의 눈가에 뜨거울것같은 감동이 있었다. “우리의에게 공장에 깃들여 가슴뜨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여러해전 12월 회령시를 찾으면서 새로 건설된 회령광과 음식적거리를 돌아보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살지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자면 원료와 자재를 떨치기 말고 총분로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돼지공장건설을 발기하셨다.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건설자재와 현대적인 설비구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속에 공장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일떠서게 되었다.

이듬해 3월 어버이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총지침에 한해서 24마리의 새끼를 낳았을때는 종업원들모두가 울고웃으며 평양하늘을 우러러 총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깃들여 모든 사연을 들려주었다. 《어버이장군님, 회령시민들이 덕을 보며 정말 좋아합니다.》 본사기자 장은영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에 깃들여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구었다.

7월교양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회령시의 기후후토에 적용되면서도 새기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우양종을 골라 들여내었으며 지방에 흔한 맹물토를 먹이 가공에 리용하여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을 보충해줌으로써 증체율을 3%이상 높인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다 적자한 꼴이 없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이들이었다. 오늘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결사의 각오안고 고기생산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며 마음속으로 삼가 이바지고 있다. 《어버이장군님, 회령시민들이 덕을 보며 정말 좋아합니다.》 본사기자 장은영



질 좋은 전자로기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일군들이 현장에서 기술자, 로동자들과 지혜를 합쳐간다. -평양전자로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천만년 길이 모실 불라는 충정의 세계

열 번째로 열린 광명성절 경축 얼음 조각 축전 장을 돌아 보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는 뜻깊은 2월, 해마다 2월이 오면 유서깊은 삼지연땅에서 광명성절 경축 얼음 조각 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 올해의 얼음 조각 축전은 첫 축전이 열린 때로부터 열 번째의 년를 새긴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0년 축전에 출품된 얼음 조각은 5천여점에 달하며 축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연 60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이번 얼음 조각 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제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 이 앞당겨오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여주었다.

얼음 조각은 조형예술의 한 형식으로 출현한지 얼마 안되지만 특이한 예술적 매력과 감화력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장려되고있으며 각이한 규모의 축전들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광명성절 경축 얼음 조각 축전 처럼 자기 수명, 자기 영도자에 대한 열렬하고도 절대적인 충정을 떠받들려 축전의 첫 문을 열고 10년 세월 변함없이 자기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파시하고있는 그런 얼음 조각 축전은 있어본적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신통한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백두산 지구 혁명전진지, 혁명사적지건설에 참가한 618 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돌격대원들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삼지연군에서 소박한 얼음 조각 축전을 준비하였다.

유서깊은 삼지연에서 백두의 정결한 흰눈과 삼지연의 맑은 물이 융결된 얼음으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비친 얼음 조각 작품을 만들어 백두산의 2월을 이채롭게 장식하고싶은 심정에서였다.

그들속에 조각가는 없었다. 창작경험도 기능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한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겨울의 강추위속에 서서 삼지연못가에서 맑은 얼음을 채취하여 정성껏 가공하고 연마하여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창작하였다.

해를 거듭하며 흘러온 축전의 나날에는 돌격대원들의 창작품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예술창조의 무한한 세계에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올해의 얼음 조각 축전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세련된 조형적형상으로 하여 관람객들의 이집없는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첫 축전에는 210여점의 얼음 조각이 전시되었지만 올해의 축전에는 1천여점에 달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축전장의 매 작품들은 일찌기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힘입음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믿음과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얼음 조각창작자의 마음을 모르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을

마련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다는것을 사상 주제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중심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높이 모신 축전장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 고있다.

5개의 편으로 나누어 전시된 얼음 조각 작품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찬송하는 작품들과 함께 사회주의정사상 강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작품들,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들도 있다.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판독하고있는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대형얼음 조각 《축원의 마음》은 눈과 얼음효과를 최대로 살려 흰 눈덮인 백두산과 정일봉,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조형집을 방불하게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 모두가 마치 소백수몰소리 유

정한 정은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듯싶어 마음이 절로 숨어지고 울부짖는 백두의 눈보라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어 격정에 휩싸이게 한다.

백두의 권고밀림속에서 받아안게 되는 그 정서적체험은 대형얼음 조각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앞에서 비상히 승화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기복과 진격의 나팔수가 형성되어 있고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투사들의 모습과 혁명적 신념이 빛나는 글발을 새긴 구호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이 작품은 흰눈의 효과를 잘 살려 눈보라휘몰아치는 백두밀림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기개를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이 작품은 그 생동성과 전두적호소성으로 하여 관람객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얼음 조각 축전장은 하나의 당정책 학습마당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역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여가가지 얼음 조각들은 시대의 박찬 숨결과 함께 최근시기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식교양적의의가 더욱 크다.

이번 얼음 조각 축전은 세련된 조형적형상과 특이한 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형얼음 조각 《거북선》과 신실의 얼음전시대에 진렬된 《현무부녀장식거울》, 《소룡이군》 등 얼음공예품들은 돌격대원들의 예술적재능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눈벽에 대상의 형태를 특징, 다양한 움직임을 생동하게 나타내는 조진화선묘법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그런 《룡을 낚는 사람》, 《맹이치기》와 같은 여러 가지 풍속화들은 지금까지의 축전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이다.

전문조각가도 화가도 아닌 평범한 돌격대원들이 창작한 하나 하나의 얼음 조각들은 뚜렷한 사상적대과 원숙한 조형예술성으로 하여 당의 예술의 대중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파시 하였고도 널리 개화발달하는 주제 미술의 화현에 또 한층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었다.

광명성절 경축 얼음 조각 축전은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어제도 오늘도 레일도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뜻깊은 2월의 환희와 격정을 더해준 얼음 조각 축전과 더불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와 살에 새기고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주제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천백배로 억세여지고있다.

글 특약기자 전철정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양식과 식생활문화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면역에서 전국로리기술경연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전국의 40여개의 금강보사단위에서 선발된 로리사, 절대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은 지정로리인 신선로, 수산물전골, 강냉이전병, 감자떡과 자기 단위에서 창작한 버섯, 고기, 물고기요리, 음료의 가공과 맛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매 단위에서 만들어내놓은 강냉이, 감자음식들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연장에 전시된 로리들은 매우 다양했고 그 가지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강냉이, 감자음식의 가지수만 하더라도 1000가지에 달했다.

우리와 만난 조선로리협회 직원들은 이번 경연이 로리기술수

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우리의 민족음식을 보다 다양하고 이채롭게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강냉이, 감자음식뿐 아니라 여러가지 고기, 물고기, 버섯들을 가지고 만든 예술작품을 방불케

진행된 전국로리기술경연

하는 수많은 로리들과 불수룩 눈 길을 끄는 다양한 음료들을 보며 관람객들은 저저마다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버섯로리경연장에서 우리는 여러 단위의 경연참가자들이 버섯과 새우를 가지고 로리를 만드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들의 경연의가 대단하였다.

재료의 선택이 같게 된 원인을 물으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버섯과 새우는 사촌지간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어울리는 재료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버섯을 먹이기 위해 마을소교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보다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맛있

는 버섯로리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해주는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말하는것이였다.

경연장에 차넘치는 경쟁심은 단순히 우승의 영예를 위한것이 아니었다.

그 밑바탕에는 인민을 위해

전시된 로리들을 주의깊게 보는 관람자들속에서 우리는 열성스럽게 사진을 찍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볼수 있었다. 가장우뚱라면 몰라도 하는 생각이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알고보니 인민봉사총국 아래 단위에서 일하고있는 백선익동무였다. 그는 경연장을 돌아보니 우리의 음식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있는가를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 단위에서도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맛있는 로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 팔려있었다.

경연에 대한 사회적관심도 매우 컸다.

봉사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가정주부들도 경연장에 찾아왔다.

중구역에서 산다는 한 녀성은 오늘 경연장에 와서 여러가지 로리를 보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많은것을 배웠다고, 이제는 어떤 로리든지 만들 자신이 생긴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에서도 음식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조향미

하나의 미풍에서 그 시대에 사는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집단의 뜨거운 숨결을 엿보게 되는 때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력포구역상업관리소 초급당원인 김창준동무의 방에는 해마다 력포구역안의 정전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내여오는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그 편지들에는 력포구역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이름과 소행에 감동된 사람들의 진정어린 목소리가 적혀있다.

이곳 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년가까이 구역안의 영웅들과 정전로병들, 자신들의 땀으로 새겨안은 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든 힘을 다하였다.

초급당원인 김창준동무는 상업의 증막공사를 짧은 기간에

그 한통한통의 편지에 담겨진

력포구역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읽은 김창준속이 들어내려가는 우리에게 김창준동무는 《응당 우리가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라고 흔연히 말하는것이였다.

응당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그 말이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 로동농민원 김현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상업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미풍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세우물상점을 개건할 때에 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이 상업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개건하는것을 자신들의 숭고한 사명으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신들의 땀으로 새겨안은 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든 힘을 다하였다.

초급당원인 김창준동무는 상업의 증막공사를 짧은 기간에

장 등 그 어디나 당정책을 자기의 것으로, 우리 몫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해 아글

라글 애쓰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이같은 일본새가 숭배

상업관리소의 일군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고기상점의 우월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지난 기간 해당 지역 주민공급담당상점들에서 진행하던 영웅, 정전로병, 특유영예군인들에 대한 생일봉사를 구역 고기상점에서 생일봉사대장을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생일절날에도 이들은 부모없는 아이들과 홀로 사는 늙은이들을 비롯하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특색있는 봉사를 진행하였다.

인민의 봉사자로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뛰고 또 뛰는 력포구역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오늘의 총진군에 보충을 맞추어가며 값있는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들의 심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린다.

우리 몫은 우리가 하자!

본사기자

인민의 봉사자 된 본분을 지켜

력포구역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적적으로 끝내기 위한 기발한 착상을 내놓고 인식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상점지붕에 띄운 청기와를 얻기 위해 소장 김병실동무가 걸고걸은 길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세우물상점은 누구나 감탄을 자아내는 건물로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지금 이곳 상업관리소에는 리용생산반이 조직되어 은을 내고 있다.

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력사의 그날에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솜옷과 작업복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상업관리소에서는 또한 특색 있는 봉사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상업관리소에 꾸러진 축산기지과 식료가공기지, 버섯재배

